



대한민국의
메디치 CEO
초대

김근태 화가 후원 프로젝트

목적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에 참여하는
한국의 차세대, 단색화 김근태 화가를
글로벌 아티스트 반열에 같이 세워줄
대한민국 문화 CEO 30분을 초대합니다.

전 세계 단색화 화가로서
유화 물감을 사용하는
아티스트는 5% 미만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대상

문화 CEO 30명

후원 내용

1구좌 3천만원

후원자 혜택

- 혜택1. 1구좌당 캔버스 유화 162cm x 130cm (100호기준) 작품 3점을 드립니다.
(1년 후 상시 출고 가능 / 작품보관증 발행)
3년 후 작품을 주관사에서 판매대행합니다.
- 혜택2. 4년차에는 위 화가의 작품 117cm x 91cm(50호기준)를 추가로 드립니다.

마케팅 계획

- 마케팅 1. 2017년 3월 조선일보 초대 개인전
- 마케팅 2. 2017년 9월 동계올림픽 개최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붐업시키기 위해서
이태리 유리작가의 유리반지에
김근태화가의 그림을 콜라보레이션한 참가기념 작품을
개최지의 지자체장 이름으로
참가선수단 153개 국가, 6천7백명에게 선물하여
전 세계에 김근태 화가를 홍보합니다.
- 마케팅 3. 2017년 11월 프랑스 파리 초대 개인전 계획
- 마케팅 4. 2018년 베이징에서 전시 계획
- 마케팅 5. 2018년 홍콩 크리스티 & 소더비 진출 계획

후원 구좌

하나은행 190-910017-62504 (주)아트오백칠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젝트 공동 주관 : (주)아트507 / 정선 아트스테이션 미술관

김근태 1953. b.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 2000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전
- 2002 EXPO Paris-Seoul, Maison des Métallos, Paris
- 2004 The Exhibition Project "Zugvogel"
Georg-Meistermann - Museum, Wittlich.
Stadtmuseum Oldenburg
Stadtmuseum Siegburg, Germany
- 2004 Galerie Konrad Munter, Meerbusch, Germany
- 2005~2015 10년간 간화선으로 명상하면서 작품에 전념,
조선백자의 순수미감을 토대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형성하였다.
제2세대를대표하는 단색화작가로 자리매김.



空 . 공

비움은 빈 것이 아니며 채움이다.

천년의 백자, 달항아리의 평면적 처리를 세월의 캔버스에 겹겹이 칠하여
무채색 안에서 또 다른 형상을 발견합니다.

迹淨 . 적정

새로운 창조를 작가의 그림에서 찾아내는데 산천이 변하는 1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인고의 세월과 생명을 적정(迹淨)이라는 그림의 제목으로 이제 깊은 바다와 높은 하늘로
펼칩니다.

작가의 선조는 강화도에서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던 그룹의 한분이셨습니다.
이순(耳順)을 기다렸던 작가는 간화선(看話禪)에 심취하여 5년의 미득(微得)을 가집니다.
작가는 오늘도 바흐의 마태 수난곡을 들으면서 붓을 잡습니다.



迹淨 Oil on Canvas 2016



迹淨 Oil on Canvas 2014